

무더위 시원하게 날린다...장성군 8월 축제·페스타 풍성

7~8일 ‘무궁화 대축제’...경관폭포 워터슬라이드·물총싸움

8~9일 썸머뮤직페스타...신명난 트로트 무대·락 페스티벌

22~23일 황룡정원 야외무대 멀티 레이저쇼 썸머나잇피크닉

장성군이 후텁지근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지역의 개성을 살린 콘텐츠와 ‘있을 건 다 있는’ 풍성한 놀거리가 준비되는 만큼 확실한 ‘인기몰이’가 예상된다.

장성군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를 동안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장성대축제’가 장성무궁화공원(장성읍 영천리 985)에서 연다. 전국 4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는 산림청 전국단위 행사로, 전남을 대표해 장성군에서 개최된다.

축제는 세 곳에서 나눠 진행된다. 무궁화공원에선 ‘전라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가 열려 무궁화가 지닌 다채로운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300개의 무궁화 묘목을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무궁화 묘목 나눔행사’도 진행된다. 공원 한편에선 꼬마 관객

들을 위한 무궁화 소품 만들기, 무궁화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워터슬라이드, 물총 싸움 등 무더위를 잊게 해줄 물놀이는 무궁화공원 아래 경관폭포 방면에서 즐길 수 있다.

개막식과 축하공연은 공원 아래 주차장 부지에서 열린다. 7일 저녁 6시 장성지역 학생 뮤지컬 동아리 ‘하랑’과 가수 황민호, 지창민 등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을 본 뒤에는 공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반디조명과 경관폭포 투광조명이 어우러진 야경을 만끽해도 좋다.

8일부터 9일까지 상무평화공원 축구장에서 열리는 ‘2025 어울림음악회 썸머뮤직페스타’도 기대를 모은다.

첫날은 미스터트롯3 우승자 김용빈, 미스트롯2 출신 강혜연,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한태현 등의 트로트 무대가 펼쳐진다. 다음날에는 ‘락 페스티벌’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낭만고양이’, ‘오리 날다’ 등 히트곡을 보유한 ‘체리필터’와 ‘트랜스 픽션’, ‘극동아시아타이거즈’, ‘롤링퀴츠’가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인다. 더위에 지친 관객들을 위해 ‘워터밤’ (물대포)과 무료 물놀이장도 준비된다.

황룡강에서도 ‘시원한 이벤트’가 열린다. 22일부터 23일까지 황룡정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썸머나잇피크닉’은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멀티 레이저쇼’와 ‘7080콘서트’, 1000명에게 맥주 1000잔을 1000원에 판매하는 ‘천천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22일 밤에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정평이 난 가수 소찬휘의 무대가 기다린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유난히 더운 여름, 장성에서 시원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했다”면서 “장성의 자랑인 제철과일과 맛집 음식도 함께 즐겨 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장성대축제’가 열릴 장성무궁화공원.

〈장성군 제공〉

즐거움이 팔팔팔...폭염 잠재운 장흥 정남진 물축제 마무리

9일 일정...수상 프로그램 큰 인기

수익금 6060만원 수해돕기 기부

‘장흥은 지금 즐거움이 팔팔팔!’이란 주제로 열린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지난 3일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눈에 띄게 늘면서 글로벌화에 도전하는 물축제에 더욱 힘을 실었다.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부터 개막식 축하공연까지 한꺼번에 태국 송크란 축제 예술팀의 공연도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연일 35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탐진강 수상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인기를 자랑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특산물의 홍보와 판매, 지역 상권과의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8월 1일과 2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열린 ‘물빛야장, 뽕뽕의 날’은 올해 첫선을 보인 상권 상생 프로그램으로 시선을 끌었다.

장흥읍 중앙로 일부 구간의 차량을 통제하고 다양한 음식과 주류를 판매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을 거뒀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채워진 물축제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알뜰한 축제’로서의



정남진 장흥 물축제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모습.

〈장흥군 제공〉

면모도 빛났다.

물축제는 입장료가 없고 수준급 공연이 모두 무료인 데다가, 체험료도 2000원에서 7000원으로 저렴하다. 5000원이 넘는 체험은 2000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프로그램을 5000원 이하로 즐길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장흥군은 물축제 운영에 따른 체험 수익금을 수해 피해 지역에 기부해, 이재민들과 아픔을 나누었다. 물축제장에는 수재의연금 모금함을 설치해 관광객과 지역민들의 동참도 끌어냈다.

지난 3일 열린 기금 전달식에서는 축제 수익금 5000만원과,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수재의연금 모금액 1060여만원을 더해 약 6060만원을 수해 피해지역에 기부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올해 물축제는 장흥의 물의 브랜드 확립,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이에 따른 산업화 기반 확보에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 상권과 연동해 발전하는 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읍 맨발걷기 산책로 경관 조성사업 준공

1.3km 구간에 4억원 투입 LED 경관조명 44본 새롭게 설치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된 맨발걷기 산책로.

화순군이 화순읍 맨발걷기 산책로 경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군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과 쾌적한 산책 환경 조성을 위해 서라 3차 아파트 뒤편에서 현대자동차 신설도로 구간까지 총 1.3km 구간에 특별교부세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LED 경관 조명 44본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맨발걷기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지만, 그간 야간 조명시설이 부족해 저녁 시간 이용에는 불편이 따랐다. 대광 그린타운 2차 아파트에서 화순고등학교까지 기존 산책로 1km 구간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으나, 앞뒤 연결 구간에 조명이 없어 연속적인 야간 이용이 어려울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산책로 중간 구간을 중심으로 앞뒤 구간까지 조명시설을 재설치해 전체 2.3km 구간이 하나의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보인했다.

설치된 LED 경관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밤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상열 화순군 도시과장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시, ‘청정전남 으뜸마을’ 현장 평가 돌입

주민주도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나주시가 2025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나주시는 마을컨설팅단과 함께 읍면동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 주도의 마을환경 개선 활동을 중심으로 컨설팅단의 맞춤형 평가를 병행하며 마을별 경

관 개선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전라남도 시책 사업으로 마을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 환경 정화, 경관 개선을 목표로 주민이 주도하는 정주 여건 개선 활동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40개소를 평가해 전라남도 우수마을 5곳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총 142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하며 마을

상징물 조성, 담장 벽화 그리기, 대문 명패 제작, 주민 쉼터 조성 등 마을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경관개선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컨설팅단의 순회 평가와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속 운영해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가꾸는 변화가 지역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라며 “주민의 자발성과 마을 특색을 살린 으뜸마을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내돈내산 SNS 리뷰 이벤트’

하맥 축제 방문객 연계 행사

후기 작성하면 최대 2만원 지급

강진군이 제3회 강진하맥축제를 맞아 관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내돈내산 SNS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소비자가 강진군 내 소상공인 업체를 이용한 뒤, 이용 사진과 영수증, 이용 후기를 개인 SNS에 게시하면 건당 5천원의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벤트는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강진읍을 포함한 전 지역 소상공인 업소가 대상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349명이 참여해 총 3천150건의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홍보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하맥축제가 열리는 8월 한 달간 참여 기준을 확대해 기존 1인당 2건에서 최대 4건까지 인정한다. 또 축제장을 배경으로 작성된 리뷰 중 우수작 50건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자는 이용 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 이용 사진, 하맥축제 홍보물 사진 등을 함께 찍은 뒤, 필수 해시태그(#강진맛집 #강진소상공인 #강진내돈내산 #강진가볼만한곳 #강진상호명기재 #강진수국길축제)와 함께 SNS에 게시해야 한다. 이후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9 리뷰에 기재된 상호명, 해시태그 누락 여부, 영수증 진위 여부 등이 확인된 뒤, 참여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군 ‘담빛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캠프’

K-컬처 문화영어 등 교육

담양군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서울에서 ‘2025 담빛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지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해 추진 중인 ‘K-Culture 문화영어 기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의 하나다.

14명의 담양 중학생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국립고궁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경복궁, 청와대, 국회, KBS 본사, 북촌한옥마을 등을 직접 탐방하며 그간 배운 문화영어를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는 현장체험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번 캠프에서 ‘담양을 알려라!’ 영어 발표회와 ‘서울 탐방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이 준비한 주제를 영어로 발표하며 문화해설 능력과 발표력을 키웠다.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을 외국어로 해설하는 제17회 전국 학생 국가유산 외국어 해설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담양의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이 지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성군, 8월까지 논벼 ‘왕우렁이’ 집중 수거

장성군이 벼 재배농가에 제조용으로 공급했던 왕우렁이를 8월 말까지 집중 수거한다.

장성군은 앞선 6월까지 3090ha 규모 논에 왕우렁이 36.8t 물량을 공급했다. 친환경 벼 농가에는 사업비 전액, 일반벼 재배 농가는 90%를 보조해 농업인 부담을 낮췄다.

섭식력이 강한 왕우렁이를 논에 풀어 놓으면 잡풀을 먹어치워 제초 효과를 볼 수 있다. 화학 제초제를 쓰지 않아도 돼 농가 호응이 높지만, 제초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회수해야 생태계 교란을 막을

수 있다. 겨우내 동면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어린 모를 갉아먹는 등 농가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장성군은 중간·완전 물떼기 기간인 8월까지 왕우렁이를 수거하기로 하고 용배수로, 농경지 등에서 수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읍면 공직자들도 현장에 나가 일손을 거드는 중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8월이 왕우렁이를 완전히 수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집중 수거작업에 적극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